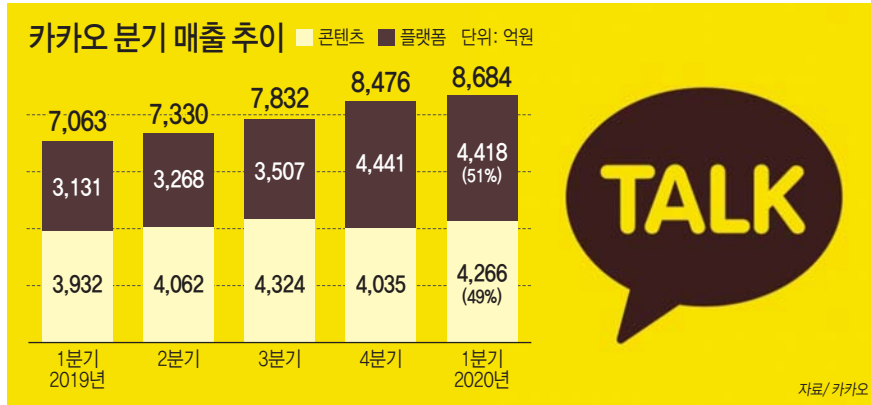


언택트 중심에 카톡 있었다... 카카오 '깜짝실적'

1분기 실적, 분기 기준 역대최고 매출 8684억, 영업이익 882억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소통 늘어 카톡 MAU 4519만명... 111만명 ↑



카카오가 1분기 예상치를 넘어선 '깜짝 실적'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언택트 소통인 카카오톡 이용이 늘면서 매출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7일 오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8684억원, 영업이익 8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219% 증가했다고 밝혔다. 모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영업이익률도 10.2%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호실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이 늘어난 카카오톡이 이끌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날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번 분기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직접적인 대면 소통이 어려워지며 카카오톡을 통한 이용

자들의 소통은 더욱 활발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1분기 국내 카카오톡 월간활성이용자(MAU)는 4519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만명, 작년 4분기보다 33만명 늘어난 수치다.

여 대표는 "특히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2월 말에는 채팅탭 이용 시간이 주간 최고치를 경신했고, 수발신 메시지량도 보다 확대됐다"며 "다양한 소통 방법에 대한 수요도 확대돼 보이스톡과 페이스톡의 사용량이 많이 늘었고, 그룹콜(단체통화)의 통화 시간은 전년

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지않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사업인 톡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2247억원이다. 신규 광고주가 늘었고, 커머스(상거래)도 성장이 견조했다. 선물하기·톡스토어·메이커스 등 카카오톡 커머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여 대표는 "카카오톡 사용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샵탭의 페이지뷰와 콘텐츠 소비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채팅창 내 샵검색 역시 증가했다"며 "이런 추이는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사업 부문 매출은 전분기 대비 14%,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005억 원으로 집계됐다.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 블루'의 가맹 사업 확대와 카카오페이 거래액 증가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커머스는 전년 동기 대비 톡스토어 거래액 5배 성장을 이끈 '톡딜'과 같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커머스 수요를 포용하는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카카오페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거래액과 증권 계좌 이용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투자습관을 만들며 증권 영역으로 확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계좌 개설 고객 수 1200만 명을 돌파하고, 올해 1분기에 18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카카오펙크는 카카오펙크 앱 2.0 업데이트로 금융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 온라인 교육 제공

한국거래소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서다.

이번 교육은 미공정정보 이용금지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상장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강자는 '멀티캠퍼스' 플랫폼을 통해 1시간 40분 정도의 강의를 수강한다.

이달 온라인 교육에 참여한 회사수(인원)는 119개사(1303명)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 기준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주권 2262사)의 5.3%에 해당하는 수치다. /송태화 기자 alvin@

예탁원

'케이-캠프 부산' 2기 참가기업 모집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 민관합동 코워킹스페이스(BIGS) 입주를 지원하는 '케이-캠프(K-Camp) 부산' 2기 참가 기업을 이달 24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참가대상기업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소재한 7년 미만의 기업으로 핀테크, 블록체인, 물류 등의 초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K-Camp 부산' 2기로 선발되면 코워킹스페이스 입주 지원뿐 아니라, 6개월간 비즈니스 모델 수립, 투자 유치, 마케팅 지원 등 실제 창업기업에 필요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또 'K-Camp 부산' 파트너사로 국내 최대 기업공개(IPO) 성과를 보유한 액셀러레이터인 크립톤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K-Camp 페이스북 공식계정과 모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유진투자증권

三電 100주 이벤트

유진투자증권이 다음달 30일까지 온라인 신규 고객 대상으로 '삼성전자 100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온라인(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 전원에게 1만원의 투자지원금이 제공되며, 해당 고객이 계좌 개설 당월에 100만원 이상 국내 주식을 거래하면 3만원의 투자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이벤트에 참여한 신규 고객 중 계좌 개설 당월에 100만원 이상 국내 주식을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101명을 추첨해 1명에게는 삼성전자 100주를, 나머지 100명에게는 1주를 지급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증권가 예측보다 가파른 상승폭 네이버·카카오

'언택트 수혜'로 주가 고공행진 네이버 1.65% 카카오 3.2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하며 '언택트(비대면) 대장주'로 자리잡고 있다. 주가가 고공행진이다. 증권사의 목표주가도 실제 주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다. 증권업계는 목표주가를 상향할지, 유지할지 고민중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65%, 3.26% 상승 마감했다. 4월 들어 이들 종목의 수익률은 26.8%, 32.5%다. 해당기간 코스피 수익률(9.9%)을 웃도는 결과다.

유독 이들 종목의 상승세가 가파른 것은 '언택트 수혜주' 중에서도 대장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의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이끈 것은 비대면생활의 활성화 덕분이었다.

우선 네이버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

(종목별 증권사 목표주가)

종목	증권사	목표주가(원)
네이버	한화투자증권	280,000
	미래에셋대우	241,000
	대신증권	230,000
	키움증권	230,000
	신한금융투자	225,000
	유안타증권	220,000
카카오	SK증권	220,000
	미래에셋대우	243,000
	하나금융투자	240,000
	대신증권	220,000
	KTB투자증권	210,000
	흥국증권	210,000
	키움증권	205,000
	한국투자증권	205,000

년 동기보다 7.4% 상승한 2215억원을 기록했다. 광고주 예산 감소에도 온라인 쇼핑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네이버 페이 거래액이 46% 늘어난 영향이다.

조용선 SK증권 연구원은 "언택트 경

제의 키워드에 부합하는 네이버의 방향성이 단기 실적을 방어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카카오 역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증권가 기대치를 20% 이상 웃돌았다. 비대면 생활 장기화로 웹툰 등 유료 콘텐츠 결제가 늘었고 '카카오T 블루', '카카오페이' 등 신사업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가파른 주가 상승이 부담이 되는 시점이 왔다.

카카오는 이날 20만6000원에 장을 마감, 키움증권이 내놓은 목표주가를 이미 넘어섰다. 증권사 중 가장 높은 목표가인 24만3000원과 비교하면 17.9% 정도 상승여력이 남았다.

네이버는 사상 최고가를 또 다시 경신, 21만5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2.1%만 오르면 SK증권, 유안타증권이 내놓은 12개월 목표주가(22만원)에 도달한다.

다만 네이버에 대해서는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추세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도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4.7% 상향한 22만5000원을 제시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언택트 시대에 강력한 플랫폼 효과가 실질적으로 확인 중"이라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선두업체로 자리잡아가는 쇼핑 부문 가치를 반영한다면 목표주가의 추가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언택트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가치) 기준 자체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고평가에 따른 우려도 함께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주가수익비율(PER)이 300배를 넘어선 상황에서 쉽게 목표주가를 쉽게 높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이들의 수익 모델이 확장되는 분위기를 보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시킨 기업 가치 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신한금융, 전 직원 디지털 역량강화 '코딩교육'

10월까지 총 5차 걸쳐 진행

신한금융투자는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전 직원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온라인 코딩 교육 프로그램이다. 5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에 걸쳐 진행되며,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파이썬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기초가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활용도가 넓

은 프로그래밍 언어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임직원의 디지털 마인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코딩 기초 과정뿐만 아니라 현업 개발자를 위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데이터 사이언스 등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이후 전사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한다.

신한금융투자 윤병민 인재육성부장은 "시범 실시했던 코딩 교육 이후, 영업점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위한 주가 및 실적 데이터 수집을 프로그래밍을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고객에게 개인화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영업 및 관리 부서 업무 전반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디지털 업무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교육을 새로운 고객경험의 실현을 이루는 시작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현업부서와 유



신한금융투자 전경

관부서간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의사결정권자의 디지털 기술·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높여 디지털 역량강화와 디지털 문화를 촉진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손영지 기자